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윤여탁*

I. 머리말

현대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국제화라는 용어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용어는 우리의 생활 환경이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극변하는 세계의 정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외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외국에 널리 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같은 국내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말을 보급하거나 교육할 필요도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 많은 한국인이 진출하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2, 3세의 재외 한국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여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는 세계 여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널리 유포 또는 교육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 교육 방법도 적극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즉 외국어로서의 자국어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던 다른 선진국의 교육 방법을 받아들여 실험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고유한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방법적 모색을 통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자국어 교육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이 이미 27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성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세계 50여개국 300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¹⁾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실시되어온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분히 한국어 문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표가 다양화되면서, 초보적인 목표를 넘어서 한국학이나 한국 문학 학습과 같은 고급스런 단계의 교육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제스처나 의사 소통 맥락과 같은 문화적 측면도 고려하는 교육 방법론이 요구된다.²⁾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문법 학습과 일상 생활 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른다는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면서, 보다 고급스런 문화 학습의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로 문학 또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의 의의와 실재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선청어문』 26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33면.

2) 박갑수, 위의 논문, 142~148면.

권종분(1998),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의 관계」, 『외국어교육연구』 창간호, 서울대 외국어교육연구소, 111~137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한국학이나 한국 문학 학습을 위한 언어 능력을 기르는 상위 단계의 한국어 학습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같은 방법적 모색의 필연성은, 국어 교육학을 지배하는 원리가 '사용'으로서의 언어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로서의 언어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³⁾는 관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즉 자국어 교육에서 초급 단계에서는 '사용'의 원리가 고급 단계에서는 '문화'의 원리가 중점이 되듯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사용'의 원리에서 '문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학습 모델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의사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학습이나 문학 학습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한국 유학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과 기대 수준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어 학습 방법론도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은 보다 고급스런 한국어 학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의 하나이다. 특히 문학이 고급스런 언어 표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행위이자 한국의 문화를 학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 방법론의 개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즉 문학을 통하여 한국어의 기초적인 의사 소통 능력은 물론 고급스런 텍스트까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3) 이용주 외(1993), 「국어교육학 연구와 교육의 기능」, 『사대논총』 46집, 서울대 사범대학, 11~14면.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특히 한국 문학 학습의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의 학습 방법론을 반성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과 그 실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되는 교재 구성이나 교육 내용의 교육적 위계의 문제 등 한국어 교육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서,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위상

일반적으로 외국어의 학습은 의사 소통 능력 또는 사용으로서의 언어 기능 신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도 효과적인 의사 소통 능력이나 사용으로서의 언어 기능 신장에 그 일차적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외국어 교육의 파행성은 일찍이부터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우선 들어보도록 하자.

영어를 “습득”하기보다는 “배우기”가 강조되고, 영어의 “사용”보다는 영어의 용례에 대한 “지식”이 강요되고,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능동적 상호성보다는 수동성이 강요되고, 따라서 “영어”로 “의미”(meanings to be communicated)를 창출하기보다는 의미를 암기된 문형과 단어를 통해 모방/재생산 하기가 강조되는, 협의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영어기능”을 습득하는 파행적인 영어 교육 문화를 양산해 낸다는 것이다. (...중략...) 학생들의 어휘에 대한 적정 학습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도 없이 수와 종류가 제한된 어휘로 만들어진 교과서, 배우지 않아야 할 어휘를 내정했기에 어색한 (awkward) 표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교과서, 문어 중심인지 구어 중심인지도 구별 안된 채 정해진 기본어휘로 꾸며지고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가 배제된 무미건조한 내용의 교과서, 영미 문화적 관점이 결여된 채 문화적 일관성이 없는 교과서, 교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교과 활동과 교과 구성, 빈

약하고 비실용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고안된”(contrived, non-authentic) 묘사, 설명 일변도의 획일화된 문체와 문형으로 이루어진 교과서, 감정어입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교과서, 언어의 문맥적(contextual) 이해가 불필요한 교과서, 문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여전히 획일화된 기능 중심의 연습으로 일관된 교과서, 논리적/문맥적 예측/분석/이해/응용/판단을 통한 독해를 허용하지 않는 교과서, 다 거기서 거기인 특성과 전문성을 잃은 교과서, 양도 많지 않은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매력을 상실시키는 삽화, 글을 내고도 간직하고 싶지 않은 교과서(...후략...)”

길게 인용한 위의 글은 우리 영어 교육의 파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의 실상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교재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한국어 교재는, 영어 교재처럼 문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기능 중심의 내용과 무미건조한 실용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바이벌(survival) 한국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교재가 그렇듯이 한국의 문화와 고급스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문학 작품이나 문학 현상은 학습 내용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런 사정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의 교과 과정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즉 이 과정에서는 한국어의 문법이나 언어 학습이나 평가에 관련된 교과를 중심으로 총 64강좌 중에서 한국 문학 4강좌와 한국 문화 2강좌가 개설되어, 한국의 역사나 지리와 같이 지역 사정의 이해 차원에서 가르쳐지고 있으며,⁴⁾ 그 내용 역시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함양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4) 어도선(1998), 「영미문학과 영어교육」, 『중등 영어과 부전공 자격 연수』,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 153~155면.

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1997, 1998, 1999학년도 교과 과정 참조.

따라서 한국 문학은 한국 사정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뿐, 한국 문학을 학습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기르거나 한국 문학이나 문화에 대한 말하기 또는 글쓰기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어 교육 지도자 양성 기관의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실제로 한국 문학이나 문화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역 사정⁶⁾에 대한 소개에 머물러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의 자료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⁷⁾

그러나 문학⁸⁾은 언어를 학습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문학은 훌륭한 듣기와 읽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읽기와 듣기라는 이해 과정을 통하여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표현 과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학습 자료이다. 즉 문학을 통하여 효과적인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 학습을 통합⁹⁾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언어 교육에서 목표로 삼는 제반 언어 활동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방법론을 택할 때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문학을 활용하는 한국어 학습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인 언어 활동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 단계에는 문학 작품에서 일상어를 바탕으로 풍부하게 구사되고 있는 구어적/관용적 표현 등을 학습할 수 있

6) Gertraude Heyd, 이광숙·이성만 옮김(1998),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하우, 71~81면.

7)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1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14면.

8) 여기서 문학은 한국 문학 작품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한국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을 지향하지만, 학습자에게 익숙한 자국의 문학을 학습 단계에 맞춘 한국어로 번역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문학의 속성을 활용하는 교수·학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실제 중심의 구체적인 문학 작품에 한정되지 않는다.

9) 윤여탁(1999),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 중한인문과학연구회 발표문.

으며, 나아가서는 문학 언어의 특징인 심미적 언어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수동적인 언어, 무미건조한 언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한국어 학습 방법은 문학 작품이 인물들의 사상, 감정, 관습, 소유물, 관계, 가치관, 태도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두려워하고, 즐기고, 그들이 표현하고 숨기고 행동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나 효율적으로 학습의 목표 문화에 대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¹⁰⁾ 이러한 경험이 문화와 연계된 의미를 이해하고 비평적 사고를 갖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궁극적으로 언어 활동의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으로 발전하여 보다 고급스런 언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은 한국 사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보다 효과적인 언어 활동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어 학습을 지향할 때, 한국어 학습은 문법이나 실용성 위주의 언어 학습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언어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Ⅲ. 한국어의 통합적 학습 방법과 문학

이제 앞에서 논의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 학습을 통해 어떻게 한

10) Gillan Lazar(1993),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New York: Cambridge U.P., pp.16~17(어도선, 위의 논문, 156면에서 재인용).

그러나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서 이런 시각은 「문화와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간된 이종언어학지 14호(1997)에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한 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때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문학 지식이나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문학을 활용하여 언어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문학 작품의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한국어의 표현 방법이나 한국인의 사유 방식을 학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가르친다¹¹⁾면, 김소월이나 이 작품의 문학적 의의,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시적 표현의 효과를 말하거나 글을 쓰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를 낭독하거나 읽는 활동을 통하여 시의 내용적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이상과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의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즉 비유적 표현이나 강조의 표현, 역설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의 실체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문학의 속성을 배우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는 교수·학습 내용은 우선적으로 학습자의 언어 구사 능력에 맞는 제반 언어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 글쓰기 중심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 이 시에 사용된 어려운 어휘의 뜻을 알아보고, 이 어휘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보자.
2. 노래하기의 갈래로 이 시는 어떤 방식을 특징적으로 구사하고 있나? 아울러 이런 표현의 효과를 일상의 언어 표현에서 찾아보자.
3.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표현의 효과를 말해보고, 이런 표

11) 「진달래꽃」과 같이 시적 언어가 구사된 시는 기초 단계에서는 학습 자료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상당한 한국어 능력을 소유한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나 문학을 체험하는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 단계에서는 이런 제재보다는 반복적 표현이 두드러진 「봄 나들이」나 「학교중」과 같은 동요가 효과적일 것이다.

현을 일상의 언어 표현에서 찾아보자.

4. 만일 당신이 이 시의 시적 화자와 같은 처지라면, 어떤 행동과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를 글로 써보자.

또는 만일 당신이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상대역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여 반응하겠는가를 이야기해 보자.

5.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태도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하여 말해 보자.

이상과 같은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문학적 표현이 지니는 심미적 정서의 세계를 이해하며,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문학에 활용한 한국어 학습은 문학의 속성, 즉 노래로서의 시 또는 이야기로서의 소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노래와 이야기의 특성을 알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언어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단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나를 살펴보자. 특히 이 시는 12행의 비교적 짧은 서정시이면서 나름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술시로, 노래와 이야기의 특성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먼저 시를 읽고,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알아보자.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느 산(山) 깊은 금담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십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뺨도 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의 「여승」

우선 이 시를 읽는 활동이 끝나고, 기초적인 어휘 학습이 끝나면,¹²⁾ 시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즉 고급 단계에서는 문학을 학습하면서 기초적인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학습을 하는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생활문 등을 활용하여 언어 소통 능력을 학습하는 기초 단계를 넘어서, 문학으로 표현되는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언어 표현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학습자들이 학습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시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작품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시의 내용에 대한 감상문을 쓸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림이나 이야기, 또는 극본으로 바꾸어 표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표현 행위를 택했으며, 왜 그렇게 표현했나를 각자 발표하는 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이해를 넘어서 표현으로 대표되는 의사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이 시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한국어 학습은 사용의 원리를 넘어 문화 원리를 지향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일상 생활에서나 유용한 단순한 의사 소통 능력뿐만 아

12) 기왕의 한국어 교재는 이 단계에서 교수·학습을 멈추고 있다. 예를 들면 고려대와 서울대의 한국어 교재는 보조 자료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활용하고 있으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원의 한국어 교재에는 학습 활동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한국어 교재 4~6급의 경우에는 어휘 학습에 머물고 있다.

나라 문학 학습을 통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교육¹³⁾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한국어 학습의 고급스런 단계에서는 단순한 의사 소통 능력 보다는 문화적 이해와 표현이나 해당 학문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표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런 한국어 학습의 방향은 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상의 학습 과정에서 문학은 다른 실용적인 텍스트, 예를 들면 팸플렛, 만화, 광고, 서류, 신문 기사, 잡지에 실린 잡담 및 논평, 영화평, 여행 기록 등과 같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런 고려를 통하여 실용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현재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표현 매체나 문학적인 텍스트를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은 실용 중심의 획일성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정서적, 심미적 표현에 대한 이해 학습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여, 이런 능력을 활용하는 글쓰기와 말하기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IV. 한국어 교육에서 위계화(位階化) 문제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이나 교재에 대한 재검토가 새롭게 요청된다.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기왕의 교육 과정이나 교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문법이나 실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 소개를 넘어서는 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과정 설계와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교재의 내용 구성의 문제는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13) 김광해 외(1998), 『초등용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 보고서.

김대행(1998),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국어교육연구』 5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중신(1999),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장(場)의 새로운 구성을 위하여』, 한국문학교육학회 제14회 학술대회발표문.

방법적 모색을 수용하면서, 한국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왕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교재 구성의 문제점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¹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한국어』¹⁾은 제재, 발음, 어휘와 표현, 연습1, 연습2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으며, 제재의 내용은 전적으로 실용문 일변도¹⁵⁾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교재 구성의 원칙은 학습 단계가 올라갈 경우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으며, 다만 어휘의 양이 늘어나고 표현의 난이도가 어려워질 뿐이다. 이런 점은 자국어 교육이라는 변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어의 기초를 학습하는 초등학교 국어 학습과도 거리가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에서는 최근 들어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교육 방법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¹⁶⁾ 더구나 최근 인문학의 위

14) 박갑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12~16면.

노명완(1998), 「한국어 교육 자료의 체제 분석-단위 구성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의 제문제』, 1998년도 이중언어학회 전국학술대회, 33~48면.

15) 최근 한국어 교과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기존의 한국어 교과서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비편, 1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2과 이것은 시계입니다., 3과 안녕하십니까?, 4과 여기는 어디입니까?, 5과 식당에 가십니까?, 6과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7과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8과 내 방은 3층에 있어요., 9과 어제 무엇을 했어요?, 10과 어디에서 오셨어요?, 11과 거기 김 선생님 댁입니까?, 12과 이 사과 한 개에 얼마입니까?, 13과 뭘 드릴까요?, 14과 어서 갑시다., 15과 버스를 탑니다., 16과 내일 저녁에 바쁘세요?, 17과 가족이 몇 명이세요?, 18과 야구를 좋아하세요?, 19과 어제는 내 생일이었습니다., 20과 경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21과 옷을 한 벌 사고 싶어요., 22과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23과 감기에 걸렸어요., 24과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25과 나는 일곱 시에 일어납니다., 26과 오늘은 내가 차값을 낼게요., 27과 겨울 방학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28과 책방에 가려고 합니다., 29과 한국돈으로 바꿔 주세요., 30과 어떤 영화였어요?, 찾아보기

16) 어도선, 위의 논문 참조.

손동철(1999), 「읽기 연극을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 『영어 교수·학습 방법론』, 한국문화사, 273~312면.

기 또는 대학의 학부제 경향이라는 국면을 맞이하여, 외국어를 언어 구사 능력의 차원에서 학습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문학과 문화에 대한 소개를 지향하는 학습 내용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문적(入門的) 활동을 통하여 외국어 학습을 유도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의 선택은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다양화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개발하는 한국어 교재 구성의 혁신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어 교재의 다양화와 위계화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교재 개발 과정에서 문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준¹⁷⁾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제재를 통하여 제반의 언어 활동을 수행하는 방향에서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흥미 있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인 언어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한국어 학습을 통하여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언어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절대적 의미만을 반복하여 암기하는 어휘 학습보다는 문화적 배경 학습을 고려하면서 어휘 사용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학습¹⁸⁾이 되어야 한다. 즉 한국어의 문맥적 활용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정서적 차이를 이해하는 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 과정과 교재 구성에서 항상 고려할 사항의 학습 제재와 학습 내용의 위계화 문제¹⁹⁾이다. 특히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경우, 문학 언

17) 영문학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① 작품 내용의 문화적 측면, ② 작품의 내용(흥미 있는 소재, 주제)과 학생들의 현실, 필요, 목적, 흥미와의 연관성, ③ 작품에 쓰여진 언어의 수준과 종류, ④ 다양한 교과/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CD-rom, videotapes, cassettes, pictures, charts, exercises, etc.), ⑤ 구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Aebersold, Jo Ann and Mary Lee Field, *From Reader to Reading Teacher*, Cambridge: Cambridge U.P., 1997, 157면.(어도선, 위의 논문, 157면에서 재인용.)

18) 박갑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참조.

19) 이 점에 대해서는 자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위계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어는 일상 언어보다는 난해하고, 심미적 활동 맥락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언어 학습 단계보다는 고급의 언어 학습 단계에서 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초 단계의 경우에는 반복적 표현이나 기본적인 표현 방식을 구사하는 동화나 민담, 동요나 노래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고, 고급 단계에서는 한국 문학의 정전(正典)적인 위상을 지니면서 풍부한 언어 활용의 예를 보이는 문학 작품을 자료로 선택하여야 한다.²⁰⁾

아울러 학습의 내용도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어휘 습득이나 문학 작품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고급 단계에서는 이런 어휘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텍스트에 대한 이해보다는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표현을, 일상 언어보다는 문학 언어를 상위 단계에서 배려하는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효과적이고 풍부한 언어 구사 능력을 길러야 하며, 이런 단계별 학습 내용은 면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학 학습을 통해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를 실현하면서, 문학을 통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같이 할 수 있는 통합적 언어 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 학습을 실천하는 방향에서 위계화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 교재의 위계화 문제는 외국어 교육 이론과 교육 과정이나 교재는 물론 자국어 교육의 이론이나 교육 과정, 교재와의 관련성도 같이 고려하여 구성

다음의 글들이 참고될 수 있다.

김중신(1995), 「소설 감상의 유형과 소설 교재의 위계화」, 『소설감상방법론연구』, 서울대 출판부.

김대형(1997), 「영국의 문학교육—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시」, 『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44~45면.

윤여탁(1997), 「현대시 제재의 교육적 위계(位階)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95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20) 예를 들면 초급 단계에서는 동요인 「봄 나들이」, 중급 단계에서는 민요인 「아리랑」, 고급 단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현대시가 제재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의 경우에는 다른 문학 갈래보다 시적인 정서적이고 문맥적인 언어 표현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위계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위상과 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학이 지역 사정 교육의 자료를 넘어, 통합적 의사 소통 능력인 언어 활동의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이나 고급스런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됨을 밝히고자 했다. 아울러 문학을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할 교육 과정이나 교재 구성의 문제, 특히 위계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 방향은 그동안 한국어 교육이 그 오랜 연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아울러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교육 방향이나 방법, 교재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하드웨어적인 요인들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기관이 없는 점이나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육 기관이 없다는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한국어 교육을 남의 일로 떠넘기거나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교육·연구 기관은 상업성에 눈이 어두운 실정이다. 순수하게 한국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일부 연구자들이 개인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요구하는 부수적인 업무 차원에서 일을 맡고 있다. 필요의 요구에 합당한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하루 속히 반성하여,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일관성이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시작하였고, 일부 대학원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연구 논문들이 간행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획 연구가 점차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어 교육이나 연구 수준 역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실재는 앞으로 개선하고 합의할 점이 너무도 많이 산재(散在)하여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학부 또는 전공이나 대학원의 설립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은 물론 재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전문화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교수법, 교육 과정, 교재 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때, 지금처럼 획일적인 문법 중심, 실용 생활 적응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지양될 수 있다. 즉 실용적인 의사 소통의 필요성, 한국 문화에 맞고 교양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사람의 필요성, 한국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의 필요성 등과 같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어의 학습 단계는 위계화의 문제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시작 단계에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자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외국어 교육에서 연구된 연구 성과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²¹⁾ 이런 점은 특히 최근 언어 교육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화 교육적 측면이나 매체 언어 교육의 관점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다매체를 활용하는 언어 교육의 실재를 적극 수용하여 한국어 교육의 방법론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21) 이런 측면은 외국어 교육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교수법(문법·번역법, 직접 교수법, Audio-lingual approach, Total physical response, 침묵법, Community language learning, 암시법, 자연법, Communitive approach, Performance based instruction)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진정으로 한국어 교육에 맞는 교수법이나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 참고문헌 》

- 권종분(1998),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의 관계」, 『외국어교육연구』 창간호, 서울대 외국어교육연구소.
- 김광해 외(1998), 『초등용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 보고서.
-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교육—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시」, 『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_____ (1998),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국어교육연구』 5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중신(1995), 「소설 감상의 유형과 소설 교재의 위계화」, 『소설감상방법론연구』, 서울대 출판부.
- _____ (1999),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장(場)의 새로운 구성을 위하여』, 한국문학교육학회 제14회 학술대회발표문.
-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1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 _____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선청어문』 26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1집.
- _____ (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2집.
- 손동철(1999), 「읽기 연극을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 『영어 교수·학습 방법론』, 한국문화사.
- 어도선(1998), 「영미문학과 영어교육」, 『중등 영어과 부전공 자격 연수』,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
- 윤여탁(1997), 「현대시 제재의 교육적 위계(位階)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95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 (1999),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 중한인문과학연구회 발표문.
- 이용주 외(1993), 「국어교육학 연구와 교육의 기능」, 『사대논총』 46집, 서울대 사범대학.
- 이중언어학회(1997), 『이중언어학회지 14호—문화와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회.

이중언어학회(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의 제문제』, 1998년도 이중언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Heyd, Gertraude(1998), 이광숙·이성만 옮김,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하우.